유 지 영
<과학신문 기자>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

MS 등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 선보여
그리드 구축으로 지구촌 과학자 연결

'오래두고사귄벗'

부산을배경으로네사나이의우정과삶을그린영화'친구'에서곽경택감독은친구를이렇게 정의한다. 같이물장구를치고 기억도공유하고, 오랜만에만나술잔을기울이면서흉금을털어놓는 사이가이 영화에서말하는친구의개념이자 우리가흔히알고있는친구일것이다.

그런데어느틈엔가친구의개념이바뀌고있다. 아니친구를만드는방법에또 다른형태가생겼다고나할까? 매일같이대화를나누고가끔은중요한정보도주고받으면서도얼굴은물론이고진짜이름도모르는이상한관계의친구들이등장한 것이다. 바로인터넷세대가만들어낸새로운친구들, 채팅친구가그들이다.

인터넷의발달은인간의상상속에나존재하던 세상과생활방식을만들어내고있다. 컴퓨터의전원을켜는것만으로수십킬로미터이상떨어진곳에있는사람과대화를나눌수있게된것이다.

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끼리모여인터넷카페나클럽을만들어활동하는것은물론이고, 컴퓨터만켜면메신저에접속해바로수다를떨 수 있다. 대화를나눌수 있는상대가한정되어있는 전화와달리인터넷에접속한사람누구든종알거릴 수 있는메신저는전혀 새로운문화를만들어 낸 것이다. 그뿐이랴, 인터넷의발달로우리는신문이나TV뉴스보다도빠르게온갖소식과정보를 접할수 있을뿐아니라, 방이나사무실에앉아쇼핑을끝낸다. 쌀과채소 심지어는아파트를쇼핑하기도한다. 또한모르는사람과친분관계를맺을수 있을뿐아니라, 한발더나아가자신의주장을 대중에게알리고지지를얻어낼수도있다.

그야말로모든것이가능한세계. 각종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보유하고있는서버에서오고가는 많은신호와정보들이또 하나의세계를만들어낸것이다. 이것은이제하나의사회로써그 기능을담당하고있다. 더군다나이 사회는하루가 다르게진보하고있다.

간단한텍스트정보만을주고받던시대에서벗어나그림과동영상이주된컨텐츠가되면서점점 더실생활과가까워지고있는것이다.

선두를달리고있는포털사이트업체와소프트웨어생산업체는물론이고유수한국가연구기관들이좀더진보한인터넷세상을창조하는데여념이없다.

젊은이들에게대화만큼친숙한의사전달방식이 바로채팅이다. 컴퓨터의전원만켜면두어개의작은창이뜨고바로메신저로접속이된다.

작은창에는현재인터넷에접속해있는친구들의이름이쭉뜨고, 바로대화를나눌수있다.

게다가이젠아예눈앞에서대면하듯얼굴을보

고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활자로만 대화를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얼굴 표정을 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3월 초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빗(Cebit) 무역박람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는 비디오 채팅 방식을 택한 MSN 메신저 7.0을 선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오디오와 비디오가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새로운 메신저 세계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비디오의 화질을 대폭 개선해, 상대방의 얼굴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컴퓨터의 작은 화면에서 지지직 거리는 잡음과 함께 띄엄띄엄 움직이는 영상은 굿바이인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에 따르면 현재 MSN 메신저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5천 500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비디오 메신저 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되는 경우, 메신저 사용자의 상당수가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미국, 독일의 사용자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일본, 브라질,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이 새로운 메신저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MS는 메신저가 기업 무용으로 활용되는 점에 착안한 새로운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들을 발표했다. 간단한 메시징은 물론이고 웹 컨퍼런싱, 인터넷 텔레폰 등이 그것이다. 메신저와 같은 툴을 이용해 해외 지사와 영상 회의를 하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 출장의 빈도를 줄이고 전화 사용료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간단한 투표를 해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함께 동영상 자료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는 노력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그리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 과학기술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구실험 장비와 컴퓨팅 자원 그리고 인력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보망 공유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이버 MS사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이 전 세계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컨퍼런스 개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의 공동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의 연구실에서 동경과 샌디에고의 대형 분석기를 원격으로 조절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환경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다. 즉, 자기 실험실에 앉아 화상 통신으로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외국의 선진 연구장비를 활용해 실험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또한 현재 컴퓨터 자원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방대한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휴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세계 최고의 수퍼컴이 해결하지

못하는계산을수행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런시도는연구개발효율의극대화를위한과학자들간의연대뿐아니라과학과사회의관계를더욱긴밀하게하기위한노력으로이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중요한과학적이슈에대한파악과잠재적위험에대한정보를일반국민들과공유하기위해SINAPASE(과학기술정보제공시스템Scientific Information for Policy Support in Europe)을 구축키로하고, 지난3월 7일부터11일까지1천명의각계전문가들이모인사회포럼에서이같은문제를심각하게논의한바있다.

이는인터넷이라는독특한시스템을통해서만실현될수 있는개념이기도하다. 유럽전역에흩어져있는수많은연구기관들이무슨일을하는지, 또한어떤성과를냈는지한꺼번에감시한다는것은물리적으로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거대한끈에묶였기때문에이런일이가능하다. 그야말로공간을초월하여새로운세상이인터넷상에펼쳐지는것이다.

인터넷커뮤니케이션의새로운형태로자리잡은블로그또한중요한화두다.

세계포탈업계의블로그경쟁도올한해뜨거울전망이다. 포탈업계의MS로 불리는구글의경우, 블로거(http://www.blogger.com)를 합병하는등 블로그전쟁에나섰다.

야후도만만치않다.

야후는아예새로운글이자주올라오는블로그를쉽게관리할수있는이동형RSS 서비스를추가했다. RSS기능은신문을구독하듯미리방문할블로그를설정해두면, 새로올라온글을모아한번에보여주는기능이다.

야후는여기서더나아가이서비스를휴대전화나PDA 등휴대기기에서사용하는이동형서비스로 발전시켰다. 주간소식이나관심분야의뉴스가자동으로PDA에뜨도록한것이다.

이이동형RSS기능은데스크탑이나노트북에서검색하는것보다불편한것이사실이나, 야후는서비스개선으로사용자가불편함을느끼지못하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한다는야심을밝히고있다. 야후의이동형RSS 서비스와같이컴퓨터와휴대전화기의경계를넘나드는서비스는더욱탄력을받을전망이다.

일본NTT 도코모는미국아도비시스템사와공동으로PDF 파일을휴대전화에서볼 수 있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PDF파일은아도비의전자문서프로그램으로, 최근인터넷에서유포되는상당수의전자문서들이이형태로작성되고있다. 따라서도코모사의서비스가본격제공되는경우휴대전화로급한문서를주고받는것도가능하다.

이 서비스를위해서도코모는제3세대휴대전화 서비스인 'FOMA' 단말기에PDF 파일열람소프트웨어인 Adobe Reader LE 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샤프가이미NTT 도코모용휴대전화기에서PDF 파일과MS오피스파일을열람할수있는' 다큐먼트뷰어기능을독자개발해탑재해왔다.

이를통해도코모는제 3세대휴대전화전체에서 문서열람서비스를제공할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세상은인터넷이라는새로운도구를통해급변하고있다. 아니차라리새로운세계와질서를창조해냈다는것이더 적합한표현이다.

인터넷은공간을초월한새로운생활패턴을만들어내고있다. 혹자는정보통신의발달이인간을고립시키는역작용을한다고지적하지만, 한편에서는거대한지구가작은휴대전화기안으로들어가면서많은인류를더가깝게하고있는것이다.

발 • 특2005. 3